Editor's Letter

행복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 앤드류 매튜스

인생이란 보이지 않는 승차권 하나 손에 쥐고 떠나는
기차여행과도 같다고 한 시구가 생각납니다. 우리 인생은 기차여행과도 같이
때로는 푸르른 들판을 가로질러 황금빛 모래사장도 만나기도 하지만
이내 어둠으로 가득한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죠.
조금은 갑갑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여행,
하지만 그 길이 즐겁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여행하고 계신지요?
그 길에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온 누리

vol.38
2016. 08

CONTENTS

Opening KAON NURI
04 CEO LETTER
08 CELEBRATION
10 KAON NEWS REVIEW

KAON Zoom In
14 EXPERT COLUMN 박현희 정보기술 컬럼가
16 BUSINESS COLUMN 이상엽 PM
18 EXHIBITION STORY
22 신입사원 입사기 인사Part 천지현 주임

KAON Culture
24 KAON CSR 인사Part 천지현 주임
26 KAON 해외특파원 소식 미디어드라이버팀 김현광 PL
28 KAON 이모저모 비서Part 장지원 주임
30 PEER RECOMMENDATION RELAY 생산기술 Part 조한식 차장

KAON Endorphin
32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34 KAON RESEARCH 가온가족들의 여름휴가 계획
36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께, 우리의 여행을 추억하며(사업2팀 명은환 사원)
38 나의 여행 답사기
부산 여행(Basic Part 조건 연구원) / 블라디보스톡 여행(사업1팀 김미선 대리)
42 TREND REVIEW
현실에 정보를 입히다. 증강현실
44 가온 다방
'뭣이 중한지' 알고 봐야 하는 영화 – 곡성(미디어 드라이버팀 류혜상 연구원)
46 KAON MEDITATION
이 책은 여행중 입니다 비서Part 장지원 주임
47 즐겁게 책 나눔하는 법

KAON Nuri 2016.08
발행처 가온미디어 **발행일** 2016년 8월 1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빌딩
전화번호 031-724-8500(대표)
디자인 편집디자인회사 귀기울 Tel.02-3452-0524
인쇄소 솔텍
www.kaonmedia.co.kr

정진 속에 기회를 만들어가길

Let's Create Opportunities from Hard Work

아침이면 우리 곁을 찾아오는 태양처럼 가온의 더 큰 도전과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굳은 의지로 성실하게 나아가는 이에게 찾아온다는 기회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창조적인 가온인을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Dear Kaon Employees,

2016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고, 사내 업무 공정 확립 측면에서도 SCM 혁신 및 원가혁신 등 많은 개선과 발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격려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송통신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이 점을 큰 자부심으로 삼고 더욱 큰 도약을 위해 정진해 주길 바랍니다. 장차 더욱 발전을 이룩해가는 가온으로의 성장을 위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We are already well into the second half of 2016. You worked particularly hard during the first half. Thanks to your devotion and effort, during this period we achieved the most impressive performance results in our corporate history. We also made a great deal of progress and improved a lot in terms of reforms made to the in-house work process including SCM and cost innovations in this six month period. This leads me to express my greatest pleasure a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of you for your outstanding contributions.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chance to report to you that Kaonmedia has now become the most influential company in the domestic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 want all of you to take pride in such a remarkable achievement and to do your very best towards helping the company make another major leap forward. I strongly hope that Kaonmedia will continue its path of growth, and I would like to request the very utmost from you for the sake of accomplishing the following tasks during the second half of 2016.

영업적인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더욱 시장개척을 강화 해주기 바랍니다. 영업직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출장을 통해 시장에서 고객과 마주할 때가 시장개척의 기회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화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지화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투자를 통한 시장과 고객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9월에는 IBC 전시회가 있고, 연중 지역별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시회 기간 중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As far as sales go, I entreat you to further enhance your marketing efforts during the second half. As you are well aware, we can only create new markets only when we go out, pound the pavement and meet our potential customers face to face. To obtain the most value for our marketing efforts, we must enhance our localization efforts. For areas where we are yet to establish local networks, we must make an all-out effort to build strong market/customer networks through future-oriented investments. Let me emphasize the fact that our future lies with the market. The IBC Exhibition is scheduled for September. And various regional working-level meetings are scheduled to take place throughout the year. Please ensure that you make proper preparations, so that you can accurately identify customer demand and generate outstanding business results during the exhibition.

현재 시장은 사업자, 경쟁사 간의 합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원가압박은 하반기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제적인 원가절감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근소한 금액의 절감도 얼마나 힘든지는 대표이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혁신 없이는 회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고 실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In the market, the pace at which mergers are taking place between both individual businesses and competitors is picking up. This will in turn create even fiercer competition in the market. It is estimated that pressure on cost will be aggravat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due to an anticipated rise in memory prices, among others. As for the Cost Innovation Task Force, I would like to suggest you to make effort towards preemptive cost cutting during the second half. Of course, I am fully aware of how hard it is to cut costs regardless of the amounts. However, please bear in mind the fact that without cost innovation, there could be no future for the company. So I ask that you please take actions accordingly.

그리고 하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Wi-Fi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소 개발인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제품군을 완성하였고, 매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업 리더들은 하반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의 선봉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Wi-Fi 사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장을 이끌어봅시다.

More crucial than anything else in the second half is the full-fledged promotion of our Wi-Fi business. Now, we have a complete product lineup thanks to the unrivaled passion and hard work of researchers at the R&D Center. Everything is ready for promoting the business. All leaders in the company's sales sector must play a leading role in making aggressive sales efforts and successfully meeting the sales target for the second half. As I have stressed on numerous occassions, the Wi-Fi business is not an option for us. It is a given. Let us prove our outstanding potential in this area and endeavor to become the market leader as quickly as possible.

항상 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 드리며, 2016년 하반기 가온인 모두가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보내도록 합시다. 무더운 여름 날씨 현명한 건강관리 해주기 바랍니다.

Once again, I thank all of you for your total devotion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day and night. I want all the employees of Kaonmedia to join forces with us to make the second half of 2016 more radiant than we have ever seen. I wish you all good health this summer.

대표이사 **임 화 섭**

Lim Hwa-Seop, CEO and Founder of Kaonmedia

축하합니다, 가온인들!

처음 그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떨립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고 가온으로 시작하는 입사자와 두 사람에서 한마음으로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에게 축하합니다라는 이 한 마디 인사는 말에 생명력이 더해져 듣는 이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선한 에너지를 공유하며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은 삶의 근육을 더해줍니다.

입사했어요

1월 PMG룹 **김도원** 수석연구원, 사업2팀 **김성철** 차장, 솔루션Part **김도형** 과장,
네이티브팀 **이호민** 전임연구원, HGW Part **양희석** 선임연구원, WiFi 시스템팀 **정세훈** 선임연구원

2월 MEA Part **안근영** 대리, 디자인팀 **장강호** 과장

3월 인사Part **공병훈** 대리, 전산Part **박준식** 대리, 생산기술Part **정현수** 차장, SCM팀 **제종근** 차장,
SCM팀 **이영재** 대리

4월 인도/동남아1Part **김기환** 차장, America 1Part **이태성** 주임, 법무Part **임정윤** 주임, SCM팀 **민동선** 과장,
Loader Part **백승호** 책임연구원, 가온소프트 Platform Part **강지선** 책임연구원,
가온소프트 Application Part **조병관** 주임연구원, 가온소프트 Platform Part **박성준** 연구원

5월 마케팅기획팀 **안은경** 주임, America 2Part **조항래** 과장, 재무관리팀 **변민호** 과장,
네트워크Part **전기봉** 수석연구원, 네트워크Part **김재석** 수석연구원, 네이티브팀 **성순제** 책임연구원,
WiFi시스템팀 **허수영** 전임연구원, SE Part **김종윤** 전임연구원, HGW Part **김주년** 책임연구원,
PVR/OTT Part **이민우** 선임연구원, 디자인팀 **강만규** 전임연구원,
가온소프트 Application Part **이해상** 전임연구원

6월 CS Part **이도훈** 과장, 솔루션Part **정민호** 전임연구원, 미디어드라이버팀 **최현이** 주임연구원,
가온소프트 영업팀 **이경일** 대리

공채 2기 IPTV팀 **김난영** 연구원, 벤자민 UI Part **정승환** 연구원, 미디어드라이버팀 **류혜상** 연구원,
디자인팀 **정해인** 연구원, CIS Part **이성희** 사원, 사업2팀 **명은환** 사원

결혼했어요

2016.02.20 가온소프트 Business Development team**강미정** 과장
2016.05.21 벤자민팀 **김강민** 전임연구원
2016.05.28 시스템팀 **노현명** 전임연구원
2016.07.09 솔루션Part **김도형** 전임연구원
2016.07.16 스마트미디어팀 **장정철** 전임연구원
2016.07.16 인사Part **천지현** 주임

2월

가온소프트, MWC2016서 첨단모빌리티 솔루션 공개

Kaonsoft Unveils Cutting-edge Mobility Solutions at MWC 2016

가온소프트는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MWC) 2016'에 부스를 마련해 참가했다. 이번 전시는 가온소프트가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가온미디어와 공동으로 부스를 마련해 엔터프라이스 모빌리티 솔루션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솔루션 등 다양한 모바일 기술과 융합된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가온소프트는 본 전시에서 모바일 의료장비 점검 솔루션과 배송관리시스템, 모바일 마케팅솔루션 등을 공개했으며 특히 가온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가 고도와 된 IoT 솔루션 '큐(QUE)'를 함께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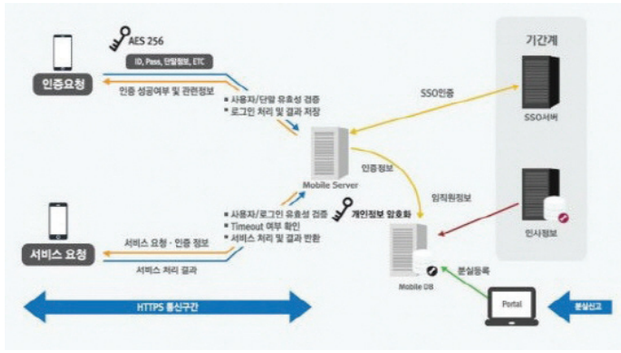
건강한 직원이 건강한 기업을 만든다–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Healthy employees make a healthy company! Regular check-ups for all KAON employees

가온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격년 건강검진이 4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검진을 통해 조기 질병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본 건강검진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임직원의 가족도 모두 가온 가족이라는 가족 친화적인 방침에 따라 4촌 이내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등) 1인 동반 검진을 지원하고 있어 가온인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건강검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중 임직원의 개별 예약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수검 받을 수 있다.

가온소프트, '모바일 문서변환 · 뷰어' 출시

Kaonsoft Launches 'Mobile DocConverter & Viewer'



가온소프트는 공공기관과 금융, 일반기업 내 모바일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미르(Meerue) 모바일 문서 변환 및 뷰어' 솔루션을 4월 5일 출시했다.
파일 변환에 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번 솔루션은 아래한글을 비롯해 MS오피스, CAD 등 다양한 전자파일을 전용 모바일 뷰어를 통해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 내 문서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해 공유된 문서 내용이 수신자 모바일에 저장되지 않고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에 자동으로 캐시가 삭제되는 등의 보안 기술도 적용됐다. Daniel Lee 연구소장은 "모바일 오피스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에 발맞춰 기업 문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본 서비스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5월

가온소프트–더존비즈온, 기업용 모바일 앱 사업 공동 추진

Kaonsoft and Duzon Bizon Join Forces to Promote the Enterprise Mobile App Business

가온소프트가 더존비즈온과 함께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시장 확대에 나선다. 지난 5월 17일 가온소프트는 국내 대표 IT전문 기업인 (주)더존비즈온과 기업용 모바일 앱 사업의 전략적 협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협력을 통해 가온소프트의 모바일 앱 개발부터 기업의 기간계 시스템과의 자유로운 연동과 미르(Meerue),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전문 기술력과 더존비즈온의 ERP, 회계프로그램,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역량이 접목되어 차별화 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ON
NEWS Review
SUMMER 2016

5월

전사가 함께하는 효율적인 회의문화 함께 해요 – 1 · 1 · 1 회의운영 원칙

Let’s Promote an Efficient Meeting Culture Companywid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1:1:1 Principle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의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1 · 1 · 1 회의운영 원칙’이 시행됐다. ‘1 · 1 · 1 회의운영 원칙’은 ‘회의 1일 전 안건 및 자료 공유, 회의는 1시간 이내 종료, 회의 종료 후 1시간 이내 회의록 공유’와 같이 회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단계에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원칙이지만 이를 통해 회의 준비에 더욱 성실히 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회의 시간 운영으로 업무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고안된 원칙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회의 공간 확보를 위해 전사 곳곳에서 리모델링과 자리 배치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KAON
Zoom In

박현희 정보기술칼럼가

발전한 기술 진보
정보 보안에 더욱 힘 써야 할 때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열쇠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무거운 책들은 사라지고 범용 직렬 버스(USB), 동고동락하는 휴대폰만 있으면 불편함이 없는 일상 등 기술 진보에 따른 편리성은 나날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의 안전은 지키고 있는지 누리는 만큼 돌아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IS에서 공개한 테러 대상 지목 정보에 내국인의 개인정보도 대량 포함되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사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스팸메일을 받는 것이 일상처럼 익숙하게 느껴져서 새삼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말하기 민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정보보안을 중요시해야만 한다.

The entire country is baffled as Islamic State's recently unveiled 'Kill List' includ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number of Koreans. Indeed such leakage of private information occurs more frequently than one would like to believe. We get numerous calls from offering to lend money every day. We are so used to getting spam mails that it feels strang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Still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we will have to regard information security as a matter of greater importance.

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기술 중인 하나인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이 더 많아졌다. 예를 들면, 최근 IBM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Watson Health'는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와 기계학습 기술로 분석해 일반 개인들의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수면 습관, 몸 상태, 일상활동, 내 운동정보와 나의 심박 수, 내가 소모한 칼로리, 내가 섭취한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하는데 대장암 진단율 98%, 자궁경부암 진단율 100%에 가까운 진단율을 보일 정도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나의 출퇴근 정보 등이 거대한 인터넷의 한 공간에 저장되고, 이 정보는 또 가공돼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쯤 되면 이제는 개개인 존재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보가 되어 인터넷을 오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f late, the horizon of 'information' has further expanded largely due to significant advance in the internet of things (IoT) - one of the fastest growing technologie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stance, Watson Health which is artificial intelligence launched recently by IBM analyzes a huge amount of unstructured data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The results are actually used to improve ordinary people's healthcare. Watson Health can read an individual's health data, including the great unknown, such as sleep habits, physical state, daily activities, workout information, heart rates, calorie consumption, and food intake, at an incredible pace, raising the diagnostic accuracy of colorectal cancer and cervical cancer to 98% and 100%, respectively. Meanwhile, big data stores my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y commute times, somewhere in the huge Internet space, with the purpose of processing it later to create new bus routes or adjust existing bus schedules. Therefor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ything related to an individual has now become a piece of information available to anyone on the Internet.

이러한 진보한 기술 가운데 정보들이 유출되는 원인은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크게 나눠보자면 첫째,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외부로부터의 공격, 둘째, 기관 내부자의 정보 유출, 셋째는 보안성이 결여된 개개인의 편리성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기관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해킹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빈도는 사실 매우 낮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일수록 일정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이 기관이 이미 이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보유출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내부자의 정보 유출이다. 개인정보를 개인 하드에 복사한 후 이를 시장에 파는 등의 사고가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혹은 내부자의 PC가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어 내부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인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USB보안이나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성이 결여된 개개인의 편리성이다. 사실 보안과 편리함은 반비례한다. 내가 편리하게 비밀번호를 1234로 만들어두면 나의 보안성은 0에 가깝게 된다. 반면 복잡한 특수문자를 활용해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면 나의 보안성은 강화되지만 편리성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이처럼 보안성보다 편리성이 더 강조될 때, 정보유출사고의 위험은 커진다.

요즘과 같이 진보된 기술 서비스 혜택과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은 상관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 서비스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가치가 개인 정보 침해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진보된 기술 서비스 이용을 대신해 개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보호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의 강력한 정보 보안 시스템 개발, 정보 활용자의 철저한 정보 보안의 의무,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개인의 정보를 지키려는 노력, 이 삼박자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편리함과 보안성 사이에서 적절한 중용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Many point out that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benefits of recent technology services and the risks of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Generally, we are positive about providing our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 benefits that we can get from technology services are estimated to be greater than the risks involved in privacy violation. In order for us to protect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and prevent privacy violation of any sort in exchange for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y services by the general public, a three-legged approach is required, including the technology developers' development of strong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information users' strict compliance with information security rules, and information providers' efforts to safeguard personal information. It is about time we struck a balance between convenience and security.

이상엽 PM

사람, 사람, 사람

"훌륭한 인재는 관리가 필요 없다."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관리가 필요없는 사람이란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찾으며 자신의 역할을 잘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창한 프로젝트도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일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계속 새로운 방법론과 기술들이 쏟아지는데, 왜 그런지 그 핵심이유를 아느냐? 그건 바로 사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공감하면서도 피~익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후 기업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다시 그 교수님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기술 때문에 실패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I remember one of my college professors talking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computer software programs.

"Can anybody tell me the fundamental reason why an increasing number of new methodologies and technologies are being produced on the grounds of improvements in project management? It is because it is so hard to manage people."

I couldn't help but laugh at the seemingly overly simplistic conclusion. Yet I had to agree to his diagnosis numerous times later when I was engaged in project management and faced with plenty of difficulties in businesses myself. Projects can fail because of people, not technologies.

그렇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운영에서부터, 큰 기업 운영까지 그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과거에는 몇 십 년마다 돌아오던 글로벌 위기 사이클이 몇 년 주기로 단축되고 있고, 각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PI(Process Innovation : 기업활동 전 부문에 걸쳐 불 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 구축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 경영개선 활동)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기업의 비용, 품질, 서비스, 스피드와 같은 요인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혁신적으로 재 설계하는 것)과 같이 경영혁신 기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능하면 쓸모가 없듯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아무리 변화했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직원의 의지와 역량에 있습니다.

That's right. The key is always people, not technologies, whether you manage a small project, or run a big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a global crisis cycle has shortened to just a few years instead of several decades in the past. To survive such frequent crises, companies introduce diverse management methodologies, including PI (Process innovation, management improvement activities seeking to maximize corporate values by eliminating unnecessary elements throughout a company's activities and reestablishing effective work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r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that involves reviewing a company's processes and redesigning them innovatively with the purpose of securing the organization's competitive edges through dramatic improvements in its various aspects such as costs, quality, service and speed). However, an extremely good system goes to waste when its user is incompetent. Likewise, it is entirely up to employees whether a company is competitive or not, regardless of the extent of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s.

그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직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 뜬 구름 잡는 대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대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허밍턴 포스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Then, the question is how can we hire great employees? Theoretically, there could be numerous answers to the question. So, let me put the question this way. How could we make great employees leave us? The Huffington Post has recently introduced '9 Things that make good employees quit.'

좋은 의지(Good Will)와 탁월한 역량(Superior Competence)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무엇(WHAT)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다음엔 어떻게(HOW)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It is crucial to a company's sustainable growth to secure great employees equipped with strong willpower and outstanding competence. Now that you have learned what to do, it is time for us to figure out how to meet the target and take actions accordingly.

♣ 훌륭한 직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 9가지

1. 과로시킨다.(Burned-out되어 비생산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추락)
   They overwork people (Employees get burned out and become unproductive and lethargic.)
2. 좋은 성과에 대한 기여를 알아보나 (공정하고 타당하게) 보상하지 않는다.
   They don't recognize contributions and (fairly and reasonably) reward good work.
3. 직원들에게 (그들의 비 업무적 부분, 예를 들면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They don't care about their employees (about the latter's personal difficulties among others).
4.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상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They don't honor their commitments (hurting employees' trust in their bosses)
5. 부적절한 사람을 고용하고 승진시킨다.(직원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상사를 떠나는 것이다. 무능한 매니저는 기업을 서서히 멈춘다 – Frog in the Boiling Pot Effect)
   They hire and promote the wrong people (Employees leave their bosses, not their companies. Incompetent managers make a company grind to a halt - the Frog in the Boiling Pot Effect)
6. 직원들이 열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재능 있는 직원들의 활용하지 못함)
   They don't let people pursue their passions. (Talented employees are not fully used.)
7. 기술을 키우게 해주지 못한다.(직원이 일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으며, 개인이 성장해야 업무생산성이 높아짐. 따라서 직원이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They fail to develop people's skills (Employees must achieve self-development so that the company can continuously make improvements in its productivity. So, companies should help employees grow personally.)
8.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지난 10년동안 성장했다고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향후 10년동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They fail to engage their creativity (If the company has grown for the past 10 years, does it mean that it can continue to do so for the next 10 years?)
9. 지적으로 도전 하지 못하게 한다.(기업과 개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They fail to challenge people intellectually. (Great bosses set lofty goals for the company and its employees and help them to reach them.)

다시 찾아온 혁신의 시작, 그 현장을 다녀오다

A Visit to the Place Where Global Innovations Begin
Mobile World Congress 2016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이 개막됐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 2천여 개 업체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모바일이 모든 것(Mobile is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주제에 걸맞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모바일을 접목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개막일에 시작된 스페인 지하철 파업과 테러 방지 보안 검색 등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으나 다양한 발전된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로 그 분위기와 참여도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Mobile World Congress (MWC) 2016 is the world's largest gathering of the mobile industry. And this year it was held in Barcelona, Spain for four days from February 22-25. It was estimated that more than 100,000 people from over 2,000 companies worldwide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Mobile is Everything,' the congress featured not only smartphones, but also a whole host of other technologies and products that incorporate cutting-edge 'mobile' technologies into a variety of products and services people use on a daily basis.

MWC 2016 drew lots of excitement from its participants despite a labor strike of subway workers that began on the first day of the congress and a strict security checking procedure intended to prevent acts of terrorism.

5세대(5G) 이동통신과 가상현실(VR)

올해 MWC의 주요 키워드는 단연 5세대(5G) 이동통신과 가상현실(VR)로 꼽을 수 있다.

5G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필수 기술로 꼽힌다. 일상생활의 모든 서비스와 모바일을 접목하는데 핵심이 될 더욱 빠른 속도 5G가 필수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전시에 참여한 전세계 이동통신 업체들은 5G의 미래상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5G는 아직 상용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T통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 이동통신 업체 참가사들은 이번 전시에서 속도 기술력을 앞다투어 뽐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2015년만 해도 주변 기술로 맴돌던 VR 기기들이 다양한 기술과 기능으로 무장하면서 전세계 모든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5G 통신 기술이 상용화되면 가장 먼저 열릴 세계로 VR로

꼽히며 이번 전시에서 단연 화두가 된 것이다. 현재 VR의 영역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머물고 있지만 동작 인식 장비, 모션 장비 등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상상한 일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전자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 몰입감(Immersion), 상호작용(interaction), 상상력(imagination)의 3I의 삼위일체로 인간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전시였다.

같이의 가치, 만물인터넷 시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그 응용 범위를 확장해가며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으로 성장해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기술로 선보였다. 모바일로 사물을 연결해 작동하던 수준에서 발달해 만물이 연결돼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모든 사람과 프로세스,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모터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만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차 관련 기술이 쏟아져 모바일, IT기기가 주인공이던 MWC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놓기도 했다.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는 사물인터넷의 핵심분야 중 하나로 자동차와 네트워크가 연결되며 통신사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 주변의 정보를 얻어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온미디어와 가온소프트의 합작

이번 전시에는 우리 가온미디어 역시 부스를 마련해 참가하여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가온미디어와 자회사인 가온소프트가 공동으로 부스를 마련해 참가했다는 점이며 또한 가온소프트의 첫번째 MWC 참가라는 점이다. 이번 전시의 대세인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솔루션과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 가정에서 IoT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인 홈컨트롤(조명, 난방기기 등)과 홈시큐리티(도어락, IP카메라 등)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합동 전시에서 선보인 'KAON Smart IoT'는 가온미디어와 가온소프트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가 고도화된 첨단 IoT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 MWC2016은 전반적으로 모바일 생태계 확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용화를 앞두고 출발점에서 대기 중인 막상막하의 조용한 기술 전쟁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구미를 당기는 매력적인 요소, 흥미로운 기술을 찾아가는 것이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였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알고 선제적으로 가온만의 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가온이 가야 할 길이 될 것이다.

인사 Part **천지현** 주임

공채2기 가온 입문교육 현장

Orientation for New Kaon Recruits Hired through the 2nd Annual Open Competition

2016년 2월 1일 혜성처럼 나타난 가온미디어 공채2기가 입사하고 벌써 하반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군별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해당 직군의 기초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가온의 조직 문화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간 공채 2기 입사 후 적응기! 한번 들여다볼까요?

New Kaon recruits who were hired through the 2nd annual open competition joined Kaon Media on February 1, 2016. They have been with us for more than six months now. They have been busy attending on-the-job training to learn about the basic knowledge involved with their specialized fields. They have also joined the company's diverse sports and social clubs. Various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the clubs to facilitate their adaption to the unique organizational culture of Kaon. Well, let us look into how the new recruits have worked to become Kaon family members during the past six months.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든든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안드로이드 관련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 내부적인 OJT 교육을 3개월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 직군의 경우에도 기본 소양을 다지기 위한 영어 교육과 독서토론 및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2월부터 진행된 동호회 활동으로 요리조리 요리 동호회와 하이클리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약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의 경우 실력이 출중하신 코치가 주 2회 강습을 진행하고 있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현재 공채 2기 중 몇몇 인원은 하이클리어 동호회에 가입해 주 2회 배드민턴을 통해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동호회를 통해 건전한 취미 활동 및 스트레스 해소, 회사 선배/동료들과의 친목 도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채2기 신입사원들이 한 걸음 더 가온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3월에는 멘토/멘티 간담회를 통해 근무 장소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 업무 외적으로도 멘토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아가 서로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면담 및 동기 모임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의 학교생활과는 사뭇 다른 사회생활을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은 지원 중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공채 2기가 빠르게 가온에 흡수되어 본인의 역량과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사 Part **천지현** 주임

매월 모든 가온인들은 급여 일부를 통해 십시일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실까요?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가온인의 마음이 모여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2016년 상반기에는 어떤 사랑을 나누었을까요?

To implement the spirit of sharing regularly, all Kaon employees donate a percentage of their salaries on a monthly basis. Do you know that an individual contributions are added up to carry out huge, significant community services together? What kind of community services did Kaon make in the first half of 2016?

가온, 나눔의 가온에 서다

Kaon Boosts Sharing

사랑의 책가방 전달

Delivering Backpacks of Love

2016년 상반기에는 특별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이 시작되는 1월에는 새해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첫 시작을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선물했는데요. 바로 성남시에 거주 중인 새터민 어린이들의 초등, 중학교 입학선물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건너온 어린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한마디가 학교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가온에서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가온인의 정성이 모여 이제 배움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후원자 결연으로 만난 인연

Robust connection made through mentoring relationships

5월에는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식을 통해 '예가원'과 '물댄동산'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가원은 야탑에 소재한 성인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로 교육, 훈련, 의료, 직업, 사회심리 영역에 대하여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 성원을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6월부터 가온은 물품 기부를 진행해왔고, 성인 지적 장애인이 모여 살다 보니 늘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해 약 260만 원 가량의 비용으로 세제, 휴지, 샴푸, 여성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물댄동산은 지역아동센터인데 요즘은 아동들이 고아원, 보육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지 않고 소단위(4~6명)로 국가지원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2016년 상반기는 계획되어 있던 지역 벽화 봉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바쁜 나날들이 이어져 노력 봉사 없이 금전 기부만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노력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온미디어로 발돋움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된다면 그 무엇보다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2016년 하반기도 가온인의 정성들이 모여 더 큰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드라이버팀 **김현광** PL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인의 이목이 브라질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만큼 뜨거운 관심과 승리를 향한 열기가 브라질로 향하고 있어 브라질의 더운 온기가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출장차 다녀온 가온인이 있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어떤가요?

The world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Rio de Janeiro, the city that is about to host the 2016 Summer Olympics, a sports festival for the entire world. The city seems even hotter than usual thanks to the worldwide attention, and the commitments of participating athletes vying to win medals for their respective countries. I spoke with a Kaon employee who recently visited Brazil on business and asked him what Brazil is like now on the cusp of the historic sporting event.

열정의 브라질을 다녀오다

Brazil, a country of passion

1. 브라질 출장은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브라질의 파트너사의 소프트웨어 정합 업무 진행차 약 3개월 체류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꾸리치바(Curitiba)라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2. 브라질 현지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음식은 주로 포르킬로라고 하는 부페식으로 가져다 먹는 레스토랑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스테이크, 치킨, 채소류, 라자냐 등을 파는데 특이하게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시스템이라 채소보다는 육류에 더 손이 가더군요. 조금 허기진다 싶어 접시를 채우다보면 50헤알(약 만 오천원 정)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브라질로 출국할 때가 봄이었는지라 무의식적으로 봄 옷을 챙겨갔었습니다만 현지는 여름이어서 길거리 매장에서 반팔 티셔츠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귀국 후에는 현지 엔지니어가 회사 앞마당에 서리가 맺힌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구요. 이렇게 브라질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하루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의상을 모두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3. 브라질에서 다녀본 곳 중 좋은 곳이 있었다면 가온인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혼자 관리할 업무가 많아 관광이 어려웠지만 이전 프로젝트 진행차 방문했을 때는 리우 데 자네이루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 올림픽 개최지이죠.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꼽힌다는데 자연과 인공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업무 종료 후 복귀 전날에서야 코파카바나 해변, 예수상, 빵산 등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브라질 해변은 꼭 한번 가볼만한 곳 입니다.

4. 업무상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상파울루에서 프로젝트 지원할 때 신영일 상무님 댁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는 업무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항상 퇴근 직전 '오늘은 뭐먹지'하는 고민이 들곤 했습니다. 보름간 댁에서 신세를 지긴 했지만 열심히 한식을 요리 해 먹으며 상무님 허리 벨트 구멍을 한 스텝 늘리는데 공헌했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에 계셔본 분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현지 과자들은 맛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과자가 맛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파트너사 엔지니어들과 3개월을 가까이 지내야 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Korean Snack 파티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첫번째 파티에서 반응이 뜨거워 두번째 파티를 시도했는데 과자 값만 무려 7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반응은? Ta Bom(따봉)! 특히 달콤한 향의 바나나킥과 냄새는 좋지 않지만 맛은 최고인 새우깡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브라질 출장을 준비하는 가온인은 이 두 과자를 준비해 현지 엔지니어들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세요.

5. 사실 지카바이러스로 소문이 흉흉해 출장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출장 초기 1주일 동안은 모기에 엄청 많이 물렸습니다. 그러던 중 근육통이 와서 크게 걱정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브라질을 방문할 가온인 여러분은 조심, 또 조심하는게 좋겠지요?

6. 브라질로 여행을 계획하거나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가온인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브라질은 한마디로 '사람 좋고 활기찬 곳'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사에 정렬적인 브라질 사람들의 활기를 가득 느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기찬 브라질인일지라도 한국인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관광차 방문하신다면 그들의 여유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지만 업무차 방문하게 되실 때는 그 점 유의하고 접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KAON Culture

가온의 탕비실, 냉장고를 부탁해

Learn how to make the most of the Kaon office pantry refrigerator

2층 냉장고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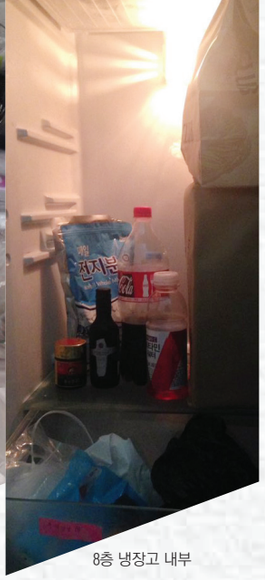
3층 냉장고 매실청

4층 냉장고 내부

4층 탕비실 전경

5층 냉장고 내부

7층 냉장고 내부


8층 냉장고 내부

비서Part **장지원** 주임

업무로 분주한 사무실 속 오아시스 같은 공간은 바로 탕비실일 것입니다. 바쁜 중에 시원한 물 한모금으로 한숨 돌릴 수 있고, 가끔은 옆자리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 타주며 동료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가온의 오아시스 탕비실에서 가온인은 어떤 간식과 음료를 즐겨먹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냉장고의 처분 어려운 식품으로 여름철 새로운 음료로 즐기는 법도 공개하니 탕비실에서 색다른 맛을 즐겨보세요.

The Kaon office pantry is like an oasis for many Kaon office workers who need a cool drink of water in the middle of the busy work day or for those who want to make their colleagues a cup of hot coffee to get know them better. The Kaon office pantry also enables employees to enjoy various kinds of snacks. Let us see what types of drinks and snacks everyone prefers. On top of that, the office pantry teaches you how to make coolest drinks in the summer with various ingredients usually available in our refrigerators. Come and enjoy some special drinks.

냉장고 속엔 무엇이 있을까요?

탕비실 냉장고를 살펴보면 각 층의 가온인의 생활과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층별로 가온인들은 어떤 음식을 보관하고 챙겨 먹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경영지원실과 가온소프트가 생활하고 있는 2층 냉장고를 살펴봅시다. 전반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된 편입니다. 손님 응대용 주스가 갖춰져 있으며 생강차, 유자차 등의 과일청이 준비되어있네요. 누군가의 식사 대용인지 샐러드와 탄산수 한 병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차갑게 식은 아메리카노 한 컵도 냉장고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주인이 누구신지 몰라도 준비된 아메리카노 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층 냉장고는 미디어사업본부와 부설연구소(Lab B)가 사용하고 있죠. 3층 냉장고는 다른 냉장고와 다를 바 없이 음료와 다소 묵은듯한 과일청이 있습니다만 독특하게 누군가가 매실 효소를 많이 가져다 놓았네요. 매실에는 강한 살균, 해독 작용이 있어 여름철에는 식중독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도 좋고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마운 매실을 매실효소로 즐기고 계신 3층 식구분이 있으신듯 합니다. 매실효소는 가정마다 담그는 법도 다르고 맛도 다르죠. 이번 여름 다양하게 매실을 즐겨보시고 상쾌하게 디톡싱 해보세요.

부설연구소(Lab C)가 위치한 4층은 여느 층보다 정리된 듯한 탕비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조직적으로 정리된 탕비실에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커피머신이 보이네요. 커피머신과 같은 공용 기계를 사용하실 경우 조직 간의 질서와 배려가 더욱 필요하겠지요. 4층 가온인들의 질서와 정리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짝짝짝). 냉장고 속 역시 탕비실과 마찬가지로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냉장고 안이 많이 가벼워서 그런 기분입니다^^

4층뿐만 아니라 제조품질그룹, 구매자재그룹이 위치한 5층, 영업본부가 위치한 8층은 냉장고 속 먹다 남은 음료, 김 빠진 콜라, 과일청 외에는 냉장고가 가뿐한 편입니다. 그런데 층마다 자리하고 있는 탄산 음료를 보며 가온인들의 건강을 걱정하게 되는군요. 식사 후 업무 중 답답한 속을 탄산음료로 다스리는 가온인이 많으신데, 탄산은 트름, 가스 배출을 유발해 일시적으로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 뿐 음료 속 과다한 당분이 체내 지방을 만든다고 하네요. 건강한 음료로 답답한 속을 다스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연구소(Lab A)가 위치한 7층 냉장고를 볼까요? 7층 냉장고는 문을 열면서부터 손 끝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문을 열어보니 건강원을 방불케하는 건강식품이 가득하군요. 7층 가온인들 저마다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녹즙, 과채즙을 준비해 종류별로 보관해두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들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준비하신 건강식품의 효능을 보려면 때때마다 꼬박꼬박 식품을 챙겨 드셔야겠지요? 7층 가온인들끼리 서로 챙겨주시면서 모두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처치곤란 냉장고 붙박이, 이렇게 처리하세요

각 층 냉장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두 가지를 꼽으면 김빠진 탄산음료와 유자차와 같은 과일청입니다. 처치곤란 식품들 처리하고 우리의 탕비실 냉장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래된 탄산음료 활용법

탄산음료는 처음 갓 뚜껑을 열었을 때 제일 맛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점차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에서 톡 쏘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점점 찾는 사람들은 없어졌죠. 꽤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던 탄산음료는 생각보다 사무실 생활 곳곳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이다는 꽃이 담겨 있는 꽃병에 부어두면 삼투압 작용으로 꽃이 물을 잘 흡수하게 해 시들지 않고 오래 예쁜 모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꽃 한 송이로 삭막한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어보는 건 어떨까요? 콜라는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죠. 버리더라도 그냥 버리지 말고 탕비실 싱크대를 한번 씻듯이 부어 버려주세요. 마지막에 물로만 잘 헹구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탕비실 청소에 한몫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이 가지 않는 유자청 활용법

이제 날씨는 더워지고 유자차가 겨울만큼 생각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올 여름을 보내고나면 묵은 유자청은 곧 유통기한을 넘길 것 같아 아깝다면, 유자아메리카노를 즐겨보시는건 어떨까요? 사실 이 메뉴는 시중 여러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탕비실에서 간단한 재료로 나만의 카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얼음컵, 유자청 1–2 아빠 숟가락, 에스프레소 1샷, 얼음, 물

1. 컵에 유자청을 담습니다.
2. 그 위에 얼음을 넣어주세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많이 넣어줍시다!
3. 마지막으로 준비한 에스프레소를 천천히 부어주면 완성!(에스프레소는 가까운 카페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지만, 탕비실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면 가루커피를 뜨거운 물에 아주 진~~하게 녹여서 사용하시면 비슷한 맛을 내실 수 있어요.)
4. 기호에 따라 물을 넣어 농도를 조절해 드세요.

PEER RECOMMENDATION
RELAY
•
30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생산기술Part **조한식** 차장

Half of what successful people say is praise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잘 알아보고, 또 발견한 장점을 배울 기회를 얻기 쉽기에 성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일겁니다. 더 넓게 들여다 보면 꼭 업무적인 성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칭찬이 우리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함께 성공해 가는 가온인! 이번 칭찬 주자는 생산기술Part의 조한식 차장입니다.

There is a saying that goes, “Half of what successful people say is praise.” The phrase means to say that people who see the good in other people and do not hesitate to learn from others are more likely to succeed. More broadly speaking, people who are aware of the fact that praising others ends up enriching our lives and helping us succeed not only at work but also in all the other important areas of our lives are the ones who live successfully. Kaon people encourage one another to make their success even bigger!

출장지에서 포즈를 취해준 신원실 과장

품질운영팀의

신원실 과장을
칭찬합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칭찬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신 이창원 팀장님과 유관부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칭찬 드리고자 하는 가온인은 품질운영팀의 신원실 과장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경험해보고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신원실 과장에 대해 좋은 첫인상을 가진 경험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신원실 과장과는 브라질 출장 업무에 대해 메일로만 대면을 해 보았을 뿐, 첫 대면을 하게 된 것은 브라질 거래선 모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당시 자재 납기 위험 요인과 복잡한 통관 절차를 피하고자 신원실 과장이 주요 자재를 직접 운반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파울루 공항 세관에서의 자재 압수 조치로 매우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정 중에 신원실 과장이 보여준 강한 책임감과 정확한 상황판단력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겪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 신원실 과장이 보여준 탁월한 친화력으로 결국 모든 유관부서의 협업을 이끌어내 해당 프로젝트를 큰 일정 차질 없이 현지 공장을 준비하고 양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Manager Shin Won-shil flew to Sao Paolo to deliver the company’s key materials fast instead of sending them by air cargo which would have taken longer due to customs clearance. However, the Sao Paolo airport customs decided to impound the materials. When dealing with the predicament, manager Shin demonstrated an outstanding level of responsibility and decisiveness. Later, despite companywide difficulties, manager Shin demonstrated his exceptional people skills by arranging for all relevant departments to collaborate for the success of the local project. He played a central role in enabling the local plant to be completed on time and to embark on mass production as scheduled.

그때 가진 첫인상과도 다르지 않게 신원실 과장은 현재 가온의 제조품질 그룹 품질운영팀에서 강한 책임감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팀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 및 친화력으로 다른 부서원들과 제조 협력사와도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에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같은 신원실 과장을 다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KAON
Endorphin

달라지는 제도 알면 스마트한 생활돼요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들이 바뀐다. 특히 자동차 및 일반제도,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정책도 달라진다. 오르는 세금도 있지만 그만큼 지원되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둬 스마트한 생활을 영위해보자.

일반제도

전기자동차 차령경감 혜택

올해부터 전기자동차도 연식에 따른 차령경감을 적용, 최대 65,000원(12년 기준)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납 혜택까지 더하면 71,500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상승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소형이 20,000원에서 23,000천원으로 3,000원이, 중형은 26,500원으로 3,500원이, 대형은 29,000원으로 4,000원이 오른다. 또한 종합검사는 소형이 54,000원, 중형이 56,000원으로 각각 3,000원 오르고, 대형은 65,000원으로 4,000원이 상승하게 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10%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효율 1등급 에어컨,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TV,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제품값의 10%를 인센티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40만원이다. 또한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승용차(8인승 이하 SUV 포함)를 구입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최대 43만원 감면도 해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6년 이전에 등록한 승용차 및 8인승 이하 SUV이다.

KTX 탑승률 낮은 시간대, 할인폭 확대

KTX 할인 폭도 확대된다. 탑승률이 낮은 시간대의 열차 편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출발하기 이틀 전까지 승차권을 사면 운임을 5~20%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10~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에 대한 할인율도 30%에서 40%로 커진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내용**

대상		정책내용
가계	공통	- 10년 넘은 경유차 폐차 후, 세 승용차 구입하면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 - TV, 공기청정기, 에어컨, 일반 · 김치냉장고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입 시, 제품가의 10% 환급(7~9월)
	여성	- 임신 중 유아휴직 허용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월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확대
	노인	- 주택연금 대상에 9억원 초과 주택과 오피스텔 포함

의료제도

만 64에 이상부터 임플란트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플란트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됐다. 임플란트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은 50%에 그치지만, 임플란트의 종류와 추가적인 수술이 진행될 경우 가격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대폭 확대

입원환자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을 대폭 늘어난다. 작년 112개였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수는 올해 400개로 확대된다.

임신 · 출산 제도 개선 및 강화

의료비 부담 없는 임신 · 출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야간분만 및 취약지 가산수가도 개선한다. 또한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입원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이밖에 제왕절개 분만은 법정 본인부담을 20%에서 최대 0%로 경감시키고,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 등에 대한 급여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7월부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산모는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일명 '무통주사(통증자가조절법 · PCA)'를 평균 78,500원에서 3,900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임신초음파와 관련해서든 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 분류기준 마련 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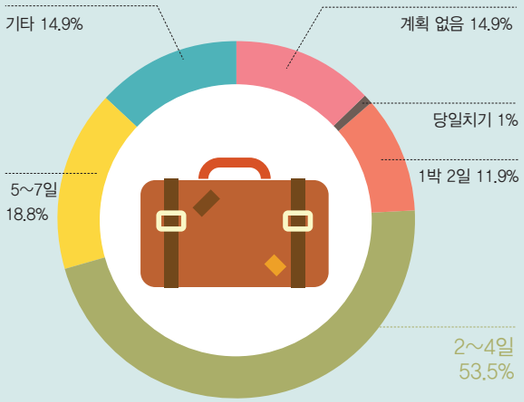
★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건강보험 강화제도**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
임신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지원액 인상 및 분만수가 개선	7월
	임신 · 출산 보험 강화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20→5%)	7월
		분만 시 상급병실 급여 적용	9월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10월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9월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70→65세 이상)	7월
노인	결핵 박멸을 위한 지원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7월
환자안전	치료재료 보장 강화	1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별도) 보상	12월
취약계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급여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7/10월
		보장구 수리료 지원	10월
	재가치료 지원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확대	10월
중증질환	장기이식 보장 강화	간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공여적합성검사 기준 확대	12월

우리가족 맞춤 여름 휴가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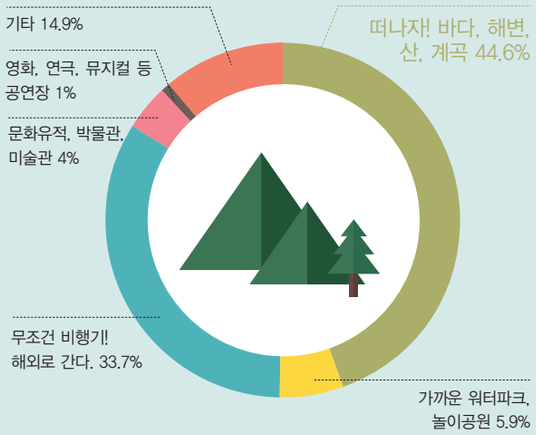
탁상용 달력을 자꾸 넘겨보고 있지는 않나요? 바야흐로 여름 휴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멋진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워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매번 마음만 앞서곤 하죠.
가족 휴가일수록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족 모두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1. 올 여름휴가, 예상 일정은 얼마나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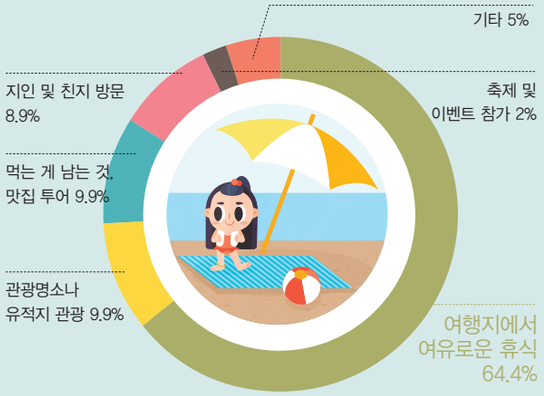
여름휴가 무작정 길게 쉬면 좋을까? 마음 같아선 1년 동안 쉬고 싶지만 업무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가온인들의 53.5%가 2~4일 정도의 휴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의 휴가도 18.8%로 나왔고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온인도 14.9%나 됐다. 여행은 계획을 짜는 맛이라고 했던가? 즐거운 휴가를 상상하면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보자!

2.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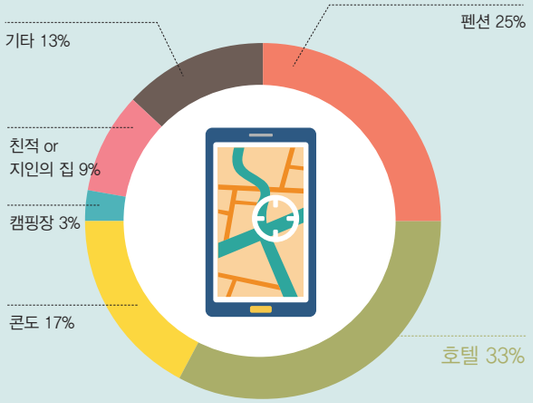
잿빛 도시에서 벗어나고픈 가온인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같다. 자연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가온인들이 44.6%로 압도적이었고, 이를 이어 해외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가온인들도 33.7%나 됐다.

3. 여름 휴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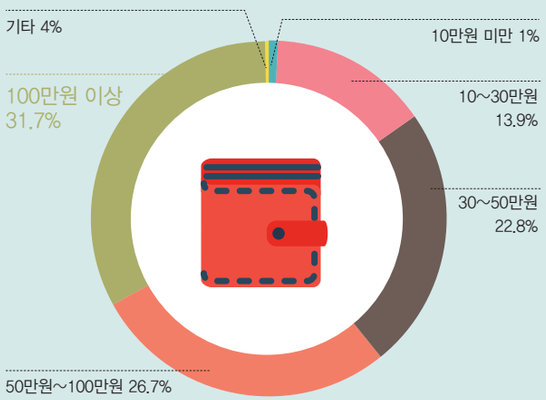
열심히 일 한 그대, 떠나라!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즐거운 휴식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가온인들의 취향일까? 여유로운 휴식을 원한다는 답변이 64.4%로 집계됐다. 매일 졸린 눈을 비비며 부랴부랴 출근준비를 하던 아침은 다 잊고 실컷 침대에서 몸을 맡기는 나른함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

4. 여름휴가 숙박 장소는 어디로 정할 예정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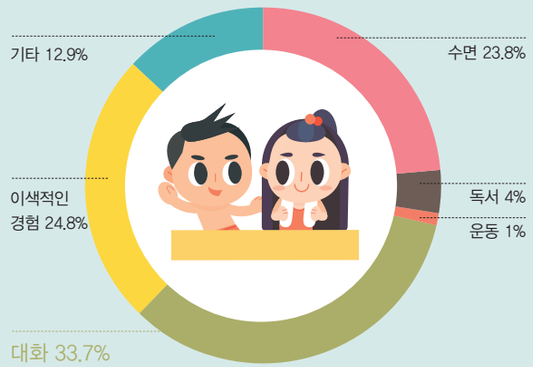
최근 호텔의 깔끔함과 펜션의 자유로움을 더한 호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할인율도 높아 호텔 예약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가온인들은 호텔 33%, 펜션 25% 등 스마트한 할인방법으로 여행지의 안식처를 잡고 있었다.

5. 여름 휴가 예상 비용은 얼마인가요?



2~4일정도의 휴가 동안 가온인들의 31.7%는 1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예상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50~100만원이 26.7%, 30~50만원이 22.8%으로 조사됐다. 대체적으로 알뜰한 휴가경비를 예상하고 있는 가온인들이었다. 휴가일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조금만 더 찾아보면 할인쿠폰들이 발견될 터이니, 가온인들은 스마트하게 득템하기 바란다!

6. 이번 여름 휴가에 우리가족(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쁜 일상에 가온인들은 휴가 동안 가족과의 대화(33.7%)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여행지의 이색적인 경험도 24.8% 조사됐으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수면도 필요하다며 23.8%라는 무시 못할 결과도 나왔다는 것이다. 이번 휴가 동안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시길 바란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우리의 여행을 추억하며

사업2팀 **명은환** 사원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게 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애인에게 쓴 가온인도 있을테고 스승의 날, 우리 아이 돌보느라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써 본 학부모 가온인도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편지는 언제 보내보았을까요? 가족끼리는 낯간지러워서 전하지 못한 편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편지를 전할 분은 미디어사업본부 사업2팀 명은환 사원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ve written a letter to somebody? Some Kaon people may have written to their sweethearts at Christmas last year. Others may have written to their kids' preschool teachers on Teachers' Day in May. When was the last time that you wrote to your parents? Do you feel awkward about handing over letters to your parents? Let us do that for you.

어머니, 딸입니다.

회사 생활을 갓 시작하고 적응하느라 바쁜 중에도 어머니와 함께한 대마도 여행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오랜 준비 끝에 취업하고 입사 전 며칠이라도 짬을 내어 여행을 가자며 함께 대마도로 떠났었죠. 설렘 가득 안고 출발한 것과는 다르게 무섭게 비바람을 맞으며 날씨 탓에 섬에 강제 유배를 당해 첫 출근도 못 할까 노심초사했었지만 이젠 추억이 되었네요.

그렇게 고생을 한 여행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다녀본 여행 중 어머니와 함께한 대마도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박 2일 일정으로 빠듯한 여행이 3박 4일로 연장이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힘들어하지 않아서 감사했고, 비바람을 그렇게 맞으면서도 둘이서 깔깔거리며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제가 외지에 나와서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와 딱 붙어서 삼시 세끼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사실 어머니와 여행이 늘 쉽지는 않았었죠. 홍콩 여행을 했을 때 제가 미숙해 여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해 더운 날씨 속 덥고 지쳤을 텐데 먹는 것마다 맛있다, 보는 것마다 좋다 하시는 모습에 죄송하고 고맙고 속상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여행을 통해 우리 엄마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젊은 친구들과도 서슴없이 지내고, 새로운 음식과 문화를 즐길 줄 알고, 숨김없이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우리 엄마.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부드러운 우리 엄마, 그리고 딸의 모든 것이 다 최고인 줄 아는 우리 엄마.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어머니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자니 어머니가 많이 보고싶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꼭 두분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두 분 함께 추억 더 많이 만들고 오빠랑 저랑 가족 여행도 더 다닐 수 있죠. 그러니 꼭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는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 아이이고 싶은 둘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부모님을 위하는 딸이 되고자 합니다. 언제나 드릴 말씀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빌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딸 은환 올림

Basic Part **조건** 연구원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행 전 꼼꼼히 준비해서 알뜰하게 즐기는 사람도 있고, 무작정 떠나 발생하는 우연 속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러 떠나는 여행도 즐겁고, 남는건 사진뿐이니 좋은 풍경을 찾아 나서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행을 다녀온 두 가온인의 초근접 밀착 여행기! 언제까지만 부러워만 할 것인가요. 이들의 루트를 따라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We can enjoy travel in tons of different ways. Some thoroughly plan their travel to realize the most economical trips. Others hate to make plans because they find pleasure in things that happen by chance. Some set out on trips to enjoy gourmet cuisines. Others seek out new landscapes believing that only stunning travel photos remain long after travel is over. Two Kaon people set out and enjoyed their trip in their own way. Observe their experiences up close. What about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someday?

친구들과 함께 떠나 더 신났던 부산 여행

– Basic Part 조건 연구원

Travel BUSAN

여행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느끼는 짜릿함,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의 설렘,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 저는 주로 식도락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지난 6월 어느 금요일 밤에 다녀온 부산 여행 중 찾은 맛집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본의 아니게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해 안주가 주가 되는 맛집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부산의 시원한 바다에 취하며 부산의 맛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양곱창으로 하나 되는 곳 – 백화양곱창

10년이 넘도록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겨온 형이 강력하게 추천해 준 양곱창집입니다. 가게 내부에 진입하면 가게의 특이한 형태에 당황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간판 안에 10여 개의 가게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하나의 가게인 줄 착각해 친구와 나란히 앉았던 자리가 서로 다른 점포여서 잠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한 점포당 화로가 2~3개뿐이기 때문에 처음 뵌 분들과 같은 화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이라는 먼 타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겸상을 하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선도의 양곱창을 연탄불에 구워내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소주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니 함께 즐겨보세요.

작지만 부산 시민의 정이 넘치는 주점 – 싸이롱

독특한 분위기의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이 집을 알게 된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사실 3대째 운영하는 국수를 꼭 한번 맛보고 싶다던 친구 손에 이끌려 국숫집을 찾았지만, 그날 뽑은 면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송정해수욕장을 거닐다가 간 곳입니다.

테이블이 세개뿐인 작은 주점이지만 안주의 맛과 이색적인 분위기는 서울의 여느 인기있는 주점보다 훌륭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사장님의 컨디션에 따라 매일 메뉴가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맛 본 메뉴는 고갈비였습니다. 표고버섯, 토마토, 자색 양파 등의 신선한 채소가 함께 어우러져 느끼함을 잡아준 부드럽고 촉촉한 고갈비의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부산 시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 연세쯤 되시는 한 시민께서 저와 친구들이 아들같다며 힘줄고기 어묵탕을 사주신 것입니다. 기본안주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의 이 주점을 찾아 부산 시민의 정도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추천 맛집 – 김유순 대구뽈찜 전문

보통 여행지의 식당은 파워블로거의 정보에 의지하곤 했는데 이 식당은 부산 토박이인 미디어사업본부 명은환 사우가 일러준 토박이 맛집입니다. 아귀찜은 많이 먹어보았지만 대구뽈찜은 처음 접해본 음식이어서 기대가 됐습니다. 양파의 달달함과 양념의 매콤함이 생선의 비릿함을 없애주는데, 감칠맛에 반해버렸습니다. 대구 자체에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콩나물과 생선이 주재료이기에 다이어트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 합리화하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최고입니다(^^). 사리를 추가해 더욱더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사업1팀 **김미선** 대리

보고 먹고 즐기는, 여유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 사업1팀 김미선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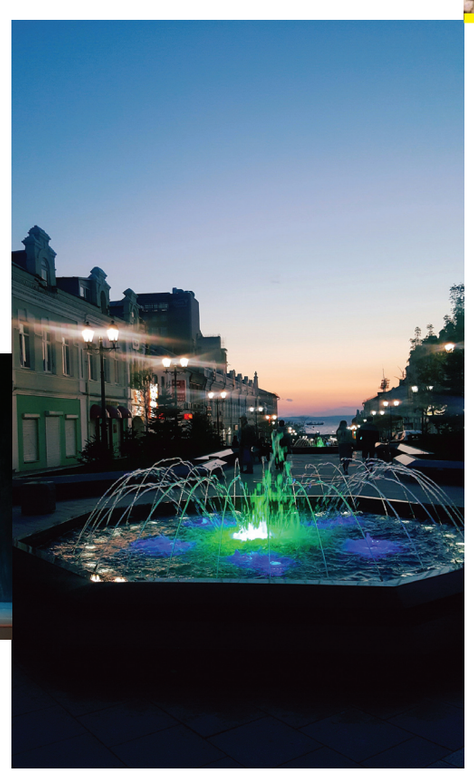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에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유럽이며, 현재 루블화의 폭락으로 싸고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곳을 탐방하는 루트로 짤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는 매력적인 곳으로 저처럼 먹방, 쇼핑, 즐기는 루트로 여행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준비를 합시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구도시라 페리로도 갈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꽉 찬 일정으로 즐기실 예정이라면 당연히 비행기를 이용해야겠죠. 한국–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은 직항으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반~2시간 입니다. 만약 러시아 국적 항공을 이용한다면 북한 상공을 지날 수 있어 우리나라 국적 항공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게다가 항공료도 훨씬 저렴하고 항공동맹사 회원이라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합니다. 빠른 예매를 하신다면 20만 원대에도 티켓을 구하실 수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을 제외한 4~10월 사이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5월 말~10월이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간 5월 첫째 주는 날씨가 오락가락해 비가 폭풍우처럼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해가 쨍쨍하기도 했거든요. 한 여름(7월~9월)에는 평균 기온이 17도~20도 사이라고 하니 따뜻한 햇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Vladivostok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음식이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으니 전통음식 샤슬릭은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샤슬릭이란 케밥의 일종으로 꼬치에 고기를 꿰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바비큐 요리입니다. 'Dva Gruzina'라는 집이 제일 유명하지만 서비스는 별로입니다. 한번쯤은 가 볼 만한 곳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쉐프의 키친'을 추천합니다. 항구 도시답게 해산물이 모두 싱싱하며 신선하니 게살이 들어간 파스타를 맛보시는걸 추천합니다.

해외에서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고자 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 내에서 NO.1 맛집이며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오리엔탈풍 고급레스토랑 'ZUMA'를 추천합니다. 푸틴대통령도 다녀갔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유일하게 한국어 메뉴를 제공하며 들어가자마자 외투를 벗어서 따로 맡겨야 합니다. 손님들이 모두 갖춰 입고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식 있는 복장을 준비하세요^^.

블라디보스토크 해양공원에는 킹크랩, 닭새우를 비롯한 해산물을 구매해 바로 데워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kg 단위로 파는데, 어떤 종류의 해산물이든 합쳐서 1kg만 맞추면 됩니다. 킹크랩은 솔직히 좀 별로였고, 닭새우가 쫄깃하며 단맛도 강하며 오동통통했습니다. 가시면 닭새우를 맘껏 드시기를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립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뭐하고 놀죠?

러시아 하면 발레와 차이코프스키가 떠오르실겁니다. Primorsky stage(오페라 발레 극장)을 방문하시면 1,200루블화(한화 약 22,000원)로 세계 최고수준인 러시아 발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내와 좀 떨어져 있지만 버스를 타고 찾아갈 수 있는 거리이며(약 30분 소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예매가 되지 않으니 현장 구매로 티켓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매달 공연 일정이 바뀌므로 공식사이트에서 스케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시내에 티켓부스가 안내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치 않더군요. 저는 티켓부스 찾느라 덕분에 러시아 골목골목을 다 돌아보았네요.

독수리 전망대는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의 피크, 야경 감상의 명소라 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시내 전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야경 감상하기는 좋지만 여자분들만 가신다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니, 낮에 가시길 바랍니다. 낮에 가도 충분히 멋있는 금각교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 기념품(마트료시카 등)을 사실 분이라 전망대 아래 기념품샵에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퐁퐁장(방방장)을 기억하는 가온인이 계신가요? 'Jump Jump'는 흔히 우리 어릴 때 퐁퐁장이라고 부르곤 한 트렘펄린장으로 우연히 골목길을 지나가다 발견했는데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에 한번 놀라고, 전용 양말을 신고 한 시간 정도 뛰다 보면 쌓인 스트레스도 BYE BYE~ 다음날 격한 근육통을 겪을 수 있으니 한 시간 이상은 뛰지 마시길 바라며, 이곳은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루가 변하고 있는
세상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이지만 흐름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오늘의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당신은, 혹은 우리는
어떤 트렌드를 통해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최신의 트렌드를 알고
지금의 자신을 찾아보자.

트렌드를 읽어야 미래를 지배한다

– 현실에 정보를 입히다. 증강현실

증강현실(增强現實. AR : Augmented Reality)이란?

'포켓몬GO'의 열풍 아닌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대선운동에도 사용되고 있는 포켓몬GO는 이미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의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켓몬GO와 유사한 게임들은 모두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이란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증강현실이란 사람들이 보는 현실에서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에는 없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인다. 포켓몬GO에서의 캐릭터가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게임이다. 증강현실은 게임과의 조화로 유저가 직접 지정된 현장으로 이동하고 아이템을 획득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임과는 별도로 지정된 장소의 명소를 제공해주기도 해, 마케팅효과도 얻을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증강현실의 원리

증강현실은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리와 순서로 작동한다.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지리/위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GPS 장치 및 중력(기울기+전자나침반) 센서(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이 정보에 따른 상세 정보가 저장된 위치정보시스템(인터넷 연결 필요), 그 상세 정보를 수신하여 현실 배경에 표시하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이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할 IT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다.

유저가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실행 후, IT기기로 특정 거리나 건물을 비추면 GPS 수신기를 통해 현재 위치의 위도/경도 정보, 기울기/중력 정보 등이 스마트폰에 임시 기록된다. 그런 다음 이 GPS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특정 위치정보 시스템에 전송한다. 그 다음, 유저로부터 위치/기울기 등의 GPS 정보를 수신한 위치정보시스템은 해당 지역 또는 사물의 상세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여기에는 물론 특정 건물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들어 있다. 이 데이터를 수신한 스마트폰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 지도 정보와 매칭시킨 후 실시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데이터 송수신 단계는 지속적으로 유지, 수행되므로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지나면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대한 상세 정보가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증강현실의 활용

이런 증강현실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뿐만 아니라, 안경에도 적용할 수 있고(구글 글래스), 빔 프로젝트처럼 공간에 투사해, 터치 스크린처럼 조작하듯 사용할 수 있다(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재 증강현실 기술은 국책사업으로 수행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요즘에는 광고 · 홍보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TV 방송 분야에도 가상 캐스터 뒤로 보이는 가상 기상도, 정보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증강현실 기술과 가상 디스플레이 기술, 3D 입체 영상 기술 등이 발전하면 더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머지 않아 스마트폰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증강현실 기술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IT동아

미디어드라이버팀 **류혜상** 연구원

곡성 哭聲

‘뭣이 중한지’ 알고 봐야 보이는 것들

영화 〈곡성〉 많이들 보셨는지요? 개봉과 동시에 많이 화제가 되었고 열린 결말 탓에 그 결말의 의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저는 영화를 미리 알고 가면 항상 실망이 컸었기에 영화 포스터조차 보지 않았고 장르가 스릴러인줄도 모르고 봤습니다. 공채2기 동기들과 함께 단합을 위해 상영관을 찾아 보았는데 지루하지 않고, 긴박한 스토리 속에 무서움을 극복하려 저절로 단합되는 것을 느끼게 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 해보자면, 주인공 종구(곽도원 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힘든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한가지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딸이라고 생각하는 딸바보 아빠이기도 하구요. 한편 종구가 사는 마을에 낯선 외지인 일본인이 등장합니다. 이 낯선 외지인의 등장 이후 평화로운 마을에 의문의 연쇄 사건들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종구의 딸이 의문의 증상으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종구는 외지인을 찾아 난동을 부리고 무속인 일광(황정민 분)을 찾아 굿판을 벌립니다. 이 외의 인물로 무명(천우희 분)이 있습니다. 무명은 종구에게 낯선 외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종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무명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영화 관람 후 감독의 코멘트를 찾아보니 우리나라 전통의 수호신의 느낌으로 설정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낯선 외지인을 사고가 나게 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악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을을 지키려는 것이었죠. 종구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을 보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정도로 사실은 선한 존재라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나홍진 감독은 이 영화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인연이 우연히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곳곳에 굿과 같은 토속신앙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요소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교적 요소들이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의심’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도입부에 성경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의심을 품는 것에 대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의심한 종구의 가족이 괴로움에 빠지게 된 것도 그러하구요. 이러한 나홍진 감독의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함께 하여 이 영화를 진짜 동서양의 오컬트가 모두 조합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가온인 여러분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영화 〈곡성〉에 대해 알아보시고 이 여름 등골 오싹해지는 기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비서Part 주임

이 책은 여행 중입니다

몇 년 전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나서 미처 풀지 못한 문제집과 참고서를 보니 아까워 마침 학교 앞에 헌 책을 사러 오는 아저씨께 친구들과 책을 몽땅 팔고 그 돈으로 여기 저기 놀러 다녔었죠. 그 후 고3시절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중 팔았던 책이 되돌아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동네 책방에 간 엄마가 헌책 매대를 기웃거리다 익숙한 딸의 필체에 끌려 딸의 자습서를 찾은 것입니다. 엄마는 이 헌 책을 보는 순간 잊고 지내 온 딸의 학창시절을 읽는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이지만 제 실제 경험이고, 또한 저처럼 책을 여행을 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책을 여행시킨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책 여행 운동을 '북크로싱'이라고 합니다. 북크로싱은 미국의 론 혼베이커가 읽기(Read), 쓰기(Register), 양도(Release)라는 '3R'을 주장하며 만든 북크로싱 사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발견해 읽고, 책에 쪽지나 조그만 포스트잇으로 생각을 작성해보고 책을 다른 곳에 두어 계속 순환하게 만들어 소통하는 것이 북크로싱의 주요 핵심이죠. 전쟁 영웅이자 지독한 독서광으로도 알려진 나폴레옹도 한 번 읽은 책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도 전해지니 북크로싱의 역사는 꽤 오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크로싱의 가장 중심 가치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 제가 경험한 신기한 경험처럼 우연이라는 상황을 통해 책 밖의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책의 원 주인과 타인의 교류와 소통을 끌어낸다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중인 책을 주워 책 뿐만 아니라 책에 남긴 메시지와 생각을 공유하고 또 나의 느낌을 확장시키며 누군가가 나의 생각을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책을 통해 만날 다음 사람을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북크로싱'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책이 자산이라고 하여 한번 가진 책을 돌려보지 않는게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헌책 전문 판매점이 성행 중이기도 하고 독서캠프, 북 페스티벌 등이 진행 되고 있어 더 많은 책들이 여러 사람과 여러 곳을 거치며 여행 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가온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책장에 잔뜩 쌓인 책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면, 이제 책장을 비우는 즐거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책을 가온 안에서 여행시켜 여러분이 느꼈던 재미와 감동을 함께 나눠보세요.

즐겁게 책 나눔하는 법

공연

Book & Talk Concert :
話양연화 <가을 콘체르토:서른 즈음에>

여느 공연과 마찬가지로 가수의 노래도 듣고 호응할 수 있는 공연. 하지만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독서!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 9월에 진행하는 본 공연은 매 회마다 새로운 도서와 새로운 주제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북크로싱의 원칙 3R 중 읽기와 쓰기(대신 이 공연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글쓰기를 노래와 대화로 풀어간다)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경기도 지역 도서관 회원은 티켓가격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독서도 하고 할인도 받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길.

출연 : 영화평론가 이동진, 소설가 김애란, 소리꾼 이자람 외
티켓가격 : 2만 2천원~3만 3천원
일시 :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20:00–22:00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문의 : 031–230–3440~2

Place

카페 이누

카페 이누는 교정 전문 치과 위층에 위치해 치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환자가 아니어도 지나는 사람 누구나(심지어 애완견까지) 드나들 수 있다. 치과 의사가 만든 공간인만큼 정백당, 인공감미료, 착향료 등 치아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건강 음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넓고 전망 좋은 서재와 테라스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데, 책 2권을 가지고 오면 서재의 책 2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북크로싱에 참여할 수 있다. 책을 가지고 온 사람들 각자의 필체로 채워놓은 책 장부를 보며 어떤 책들이 오갔는지를 보는 것도 즐겁다.

주소 : 서교동 398–16
시간 : 11시~24시